



DINO TREASURE

목차

1. Scene 0 – VR세계
 0-1 Prologue : 선희
2. Scene 1 – 해변지대 초입
 1-1 Title : 시작
3. Scene 2 – 해변지대 보스존
 2-1 Title : 납치
4. Scene 3 – 개발자의 공간
 3-1 Title : 로비
5. Scene 4 – 다이노 트레저
 4-1 Title : 적응
6. Scene 5 – 화산지대
 5-1 Title : 마크

다이노 트레저 시나리오

- 플레이어가 성별을 선택한 뒤에 시나리오가 진행된다.
- 대사 형식 예시:



Scene #0 – 해변지대

풀다이버

베테랑 VR게이머 준과 리는 오늘도 풀다이버 가상현실을 즐기던 중, 새로운 VR 풀다이버 슈팅 게임, '다이노 트레저'의 테스트에 선정됐다는 알림을 받는다.

준 “합격이다! 리! 우리가 뽑혔어!”

리 “엄청 좋아하네.”

준 “당연하지! 공룡이라고 공룡!”

리 “그래그래~. 그래픽이랑 플레이영상을 보니 정말 잘 만든거 같더라.”

준 “어서 들어가자!”

리 “VR안에서도 이런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환한 빛이 나며 이동한다. 이동한다는 느낌보다는 빨려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했다. 준과 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진다.

Scene #1 – 해변지대

둘은 정신을 차린다. 눈을 떠보니 해변가에 들어서있는 둘을 보았다. 마치 진짜 바다에 놀러온 것 같았다.

준 “아우 머리아.”

리 “방금 무슨 일이 있던거지?”

준 “모르겠어. 빛과 함께 이동한 것 같은데 방식이 신기하네.”

리는 주저앉아 물과 모래를 만져 본다.

리 “촉감이 진짜 같은데?”

준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말한다.

준 “근데 우리 들어온거 맞아? 너무 현실적인데?”

둘은 해변가를 둘러본다.

[해변의 환경요소 설명 및 이동 관련 튜토리얼 진행]

주변을 둘러보자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어룡이 보이고 준과 리는 그 공룡에 다가간다.

인기척을 느낀 어룡 모사사우르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고 준과 리는 그를 피해 도망친다.

도망치던 준과 리가 모사사우르스에게 공격당하기 직전, 작은 공룡이 나타나 모사사우르스를 (일시정지)멈추게 한다.

??? “괜찮으신가요?”

??? “제가 당신들을 초대한 개발자 선희라고 합니다.”

선희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어룡을 오래 멈출 수 없으니 일단 저의 힘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눈 앞의 공룡을 처치해주세요.

모사사우르스와의 전투가 시작된다.

[스킬 사용법과 무기 교체 등 전투 튜토리얼 진행]

Scene # 2 - 납치

준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며 민둥 모사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도망쳐버린다.

선희 “저 도망친 모사사우르스를 따라가서 처치해야 합니다.”

준 “오케이, 가보자고!”

준이 자신만만해하며 애기를 함과 동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프테라노돈으로 보이는 공룡이 날아와 준과 리에게 다가온다.

리 “위험해 준!”

리는 준을 밀치며 본인이 프테라노돈에게 붙잡힌다. 프테라노돈은 준과 리 두 명을 잡은 줄 알고 다시 높이 날아올랐다.

준 "리야!"

멀어지는 프테라노돈과 리를 보며 준은 총을 쏘보았지만 이미 닿지 않는 거리까지 멀어졌다.

허망한 표정으로 시야에서 사라지는 리를 쳐다만 보는 준.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준이 개발자 공룡에게 따지듯 물어봤다.

준 "이게 무슨일이죠? 리가 왜 잡혀간거예요!"

선희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님을 구할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준 "그 전에?"

선희 "모사사우르스를 처치해야만 합니다. 모사사우르스에는 보석 조각이 박혀있을 거예요. 모사사우르스를 물리치고 보석 조각을 얻어야만 합니다."

준은 고민에 빠진다.

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 준.

그래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공룡의 말을 듣기로 한다.

그 때 레드 아노말, 블루 아르켈 등 몬스터들이 나타난다.

준 "이 방법밖에는 없는건가.."

 ' 두두두두두두.'

준 "점점 전투에 적응이 되고 있어. 그런데 이 보석들은 뭐지? 일단은 최대한 챙기면서 가야겠어."

게임 경험이 풍부한 준은 게임 속 세상에 점점 적응하게 되며 몬스터들을 처치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모사사우르스가 준의 눈에 들어온다. 준은 주저않고 모사사우르스와 전투한다.

준 "아까는 리와 같이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버겁군.."

그 때 선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선희 "지금까지 얻은 보석은 켜 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기에 장착하여 무기를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희의 말을 들은 준은 켜 조각을 무기에 가져다 놓는다. 그 때 무기가 빛이 나며 모양이 조금 변한다.
[무기 강화 안내 진행]

준은 결국 모사사우르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한다.
어룡의 몸이 투명하게 사라지며 아이템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남긴다.

준 "이게 뭐지?"

선희 "그걸 저에게 주세요!"

준은 아직 선희를 신뢰하지 못하여 눈치를 보고 있었다.

준 "이게 뭔데요?"

선희 "그건 켜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에는 좀 길어요.. 그 켜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준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준이 선희공룡에게 따지듯 물어봤다.

준 "이게 무슨일이죠? 리가 왜 잡혀간거예요!"

선희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님을 구할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일단 그 켜를 저에게 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는 준은 켜를 선희에게 건넨다.

선희 "시간이 없으니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현실과 같이 고통을 느끼며 실제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준 "뭐? 그게 무슨소리야 나갈수도 없고 죽을 수 있다니!"

·
·
·
그러면 리는요! 리가 지금 붙잡혀갔는데!”

선희 “일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잠시...”

선희가 켄을 들고 집중하기 시작하고 눈앞에 포탈이 생성된다.

선희 “저를 따라 이 포탈로 들어오세요. 그 곳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희는 먼저 포탈에 들어간다. 준은 잠깐 고민하는 듯 싶더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탈에 들어간다.

포탈에 들어서자 공간이 바뀐다.

Scene 3 - 개발자의 공간

포탈에 들어서자 특이한 공간이 나온다.

준 “이 곳은 어디지..”

선희 “이 곳은 몬스터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본래 게임 세상으로 따지자면 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희 “로비 안에서는 준님을 포함하여 현재 쓰고 있거나 앞으로 얻을 무기의 스탯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많은 것을 할 수 있지요”

준은 지금까지 많은 게임을 해본 게임의 마니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어떻게 저 공룡이 자신이 저렇게만 들고도 이해할 줄 알고 저 정도의 설명만 해주는지를 잠깐 생각했다.

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하죠?”

선희 “함께 이세계로 넘어온 리님을 구하려고 하시느거죠?”

준 "네 당연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선희 "아마 준님은 지금 이세계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준은 자신이 이 공간에서 나갈 수 없는 것을 진작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고개만 끄덕거릴 뿐이었다.
선희공룡이 월드맵을 열어 화산지대를 가리킨다.

선희 "저기에 저와 함께 이 세계를 만든 개발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마크라는 사람이죠.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저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런 모습이 된 이유도 저기 있는 마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 세계를 만들었지만 가치관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를 배신했죠. 마크에게 도망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잼이 파괴되면서 지형이 무너졌습니다. 잼에는 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힘이 있어 평화로운 세계로 유지를 할 수 있었지만, 잼이 산산조각나며 지형 곳곳에 흩어져버렸습니다. 그 중, 크기가 비교적 큰 잼들은 지대에 흡수되며 여러 지형을 이루었고, 몇몇 공룡들도 보석을 흡수하여 흉폭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공룡들이 난폭해진 이유도 잼 때문이죠. 상황을 이 곳으로 들어오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공룡들을 물리치고 마크에게서 리님을 구하고 잼 조각을 모아 다시 제가 힘을 되찾는다면 준님께서도 이 세계를 온전히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크 몰래 공룡의 모습으로 나와 준님을 도와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잼 조각이 저에게 들어 올 때마다 저는 힘을 어느정도 되찾아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리님을 구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도 함께 구해주세요!"

준은 선희공룡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이윽고 준이 입을 떼다.

준 "제가 할 수 있는건 한가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어쩔수 없죠.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같이 힘내봐요."

선희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미 해변지대에서 민둥 모사를 처치하여 해변 지대의 잼 조각들을 무사히 획득했습니다. 다음 장소들을 차례대로 넘어가다보면 리님이 있는 곳까지 도달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음 장소로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Scene 4 – 다이노 트레저

준은 선희공룡에게 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선희 "지금까지 쓰고계시던 총은 기본 무기입니다. 탄창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위력은 약한 총이죠. 이 무기들 중 하나를 골라서 가져가세요. 제가 이 무기들을 다 드리고 싶지만 그거까지는 능력이 부족하여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준 "아닙니다. 이거라도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준은 선희공룡의 지원을 받아 다음 지대로 넘어간다. 바람이 선선하게 분다.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초원이었다. 게임 마니아답게 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 세계의 법칙, 시스템 등을 알아가며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 준이었다. 하지만 난관에 봉착했으니..

준 "이제 겨우 두번째인데 저 공룡은 왜 저렇게 강한거야.."

장난 시조새 "푸르르르르"

엄청나게 큰 시조새를 마주한 준은 처음 보는 광경에 크게 당황했다. 저게 시조새인지. 왜이렇게 큰지, 심지어 가장 준을 당황시킨 큰 이유는 이 싸움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장난꾸러기가 따로 없었지만, 준의 생각보다 너무 강했다.

준 "헉...헉... 여기서 죽으면 모든게 끝이라고 했어. 내 무기도 처음보다 강해졌는데 여기까진가.."

기운이 다 빠져 쓰러져있는 준에게 장난 시조새가 다가와 준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 때..!

선희가 나타나 준을 데리고 로비로 탈출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준이 다시 정신을 차렸다.

준 "나는.. 죽은건가.. 리..."

선희 "정신이 드세요?"

준 "공룡님..? 저를.. 구해주신건가요."

선희 "몸은 제가 회복시켜드렸습니다만, 급하게 데리고 나오느라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준은 두 손으로 자신의 몸을 훑으며 만지작 거린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뒷주머니에 걸려있던 총 하나를 집어든다. 리가 잡혀가며 떨어뜨렸던 처음에 쓰던 무기였다.

준 "리..나를 지켜주는거야?"

선희 "기본 무기는 준님의 몸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군요. 다행이네요."

준 "다행이긴 하지만.."

준은 일전에 만났던 장난 시조새를 떠올리며 낯빛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이겨야할까 고민하던 그였다.

선희 "만났던 공룡이 강하던가요?"

준 "예..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네요"

선희 "이 곳에서 방법은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희에 말에 고개를 올려 선희를 바라보는 준이었다.

선희 "강한 공룡보다 더욱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준 "... 잔인하시군요."

선희 ".. 사실입니다..."

부정하기는 싫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았다. 사실 준도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선희의 말이 맞다. 준 본인이 강해지고, 강한 무기를, 더 강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준이었다.

준(독백) "그래. 할 수 있어."

준 "원래였다면 한 번 죽은 목숨. 공룡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더욱 더 노력하고 증진하여 저희 목적을 이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준은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모습은 없지만,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선희도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포트 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준은 성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준은 해변지대를 가볍게 돌파하며 초원지대에서 장난 시조새를 장난치듯 물리쳤고, 차례대로 정글지대의 포이즌 딜로포, 사막지대의 강철 프테라, 얼음지대의 아이스 스테고, 폐허지대 번개랩터를 물리치며 승전보를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화산지대에 다다른 준.

Scene 5 – 화산 지대

준(독백) “여기까지 올라왔나”

선희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준 “얼마나 걸린건지 모르겠네요. 리는 잘 있는지..”

선희 “아마 제가 아는 마크라면 리님은 무사하실 거예요. 준님께서 직접 마주할 시간입니다.”

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가진 이 최고의 무기들과 함께 말이죠.”

화산지대에 올라옴과 동시에 파키케팔로사우르스가 정수리에서 불을 뿜으며 달려온다. 준은 그간의 경험으로 당황하지 않고 수류탄을 던진다.

‘피슈우웅’

준 “하하 마지막이라더니 별것도 아니구나!”

별로 어렵지 않게 정상까지 다다른 준은 자신감에 가득 차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이미 이세계를 떠나 리와 함께 소풍을 가서 돛자리를 깔고 리의 무릎을 베개삼아 누워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준이었다.

리(상상) “아~”

도시락에서 사과를 꺼내 먹여주는 리.

준(상상) "히히 맛있다 리."

'오물오물'

티라노 "크아아아아아-!"

엄청나게 큰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준이었다.

준 "엄맛 깜짝아..!"

준 "이 크기는 뭐야.. 조금 위협적인걸..?"

'뚜두뚜두뚜두뚜두'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공격하는 준이었다. 하지만 어림도 없어보였다. 티라노는 멀쩡했다. 준은 지쳐서 한동안은 방금처럼 강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준 "칫.. 저 녀석의 약점은 어디지.? 일단을 한 발씩 부위별로 맞춰봐야겠어."

'탕'

'탕'

'탕'

'탕'

티라노 "크르르르.."

티라노가 멈칫했다. 아니, 뒷걸음질? 그것도 아니다. 그냥 밀려났다.

빗나간 탄 알이 티라노의 눈에 튀었었다. 그 때였다. 티라노가 아파하는 모습을 본 것은.

준 "웁다구나"

‘두두두두두두두’

티라노의 눈을 향해 집중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티라노는 고통에 잠겨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 “거기까지다. 애송이”

누군가 나타났다. 이세계에는 준 본인과 리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준은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준 “그 쪽이 마크라는 양반이요?”

마크 “하하하 그래도 머리는 없지는 않구나!”

준 “리는! 리는 어디에 있죠?”

마크 “알고싶으냐?”

준 “그러면 모르고싶을까요?”

마크 “500원을 주면 알려주마.”

준 “...”

어이가 없었다. 준은 완전히 자신을 놀림거리로 생각하는 마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준 “제가 직접 알아볼 수 밖에 없겠군요.”

마크 “할 수 있다면 해보아라. 너는 그저 나를 즐겁게 해줄 장난감밖에 되지 않아.”

준(독백) “이것은 나를 흥분하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야. 절대 흔들리지 않겠어.”

마크 “보여주마. 나의 걸작을!”

갑자기 마크가 사라졌다. 상처가 있는 티라노의 몸에서 빛이 난다. 이윽고..

메카 티라노 “(기계음)『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준 “할 수 없어도 해낼거야. 싸울 수 없어도 싸우겠어. 나를, 우리를 이렇게 만든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기계음)『지잉지잉지잉.. 피슈우우우웅』’

준 “꼭 해줄 말이 있었어 리야 만나서 우리 얘기하자.”

준은 메카 티라노를 물리치고 아쿠아젼, 그로우젼, 정글젼, 샌드젼, 아이스젼, 썬더젼에 이어 파이어젼까지 얻고 마지막 젼 조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붙잡혀있는 리를 구하여 이세계를 구하고 다시 그들이 살고 있던 원래 세계로 돌아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준 “지야아아아아아압!”

Dino Treasure

-End-